

10 지혜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한다면
결코 남을 도울 날이 없을 것이며
여가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 必無濟人之日
待有暇而後讀書 必無讀書之時
정약용 『목민심서』 中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논어 헌문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부 지 인 야

Do not worry that others are ignorant of you,
but worry that you are ignorant of others.

患 근심하다, 걱정하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앎이다.

논어 위정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지 지 위 지 지 부 지 위 부 지 시 지 야

If you say “I know” when you know it, and say
“I don’t know” when you do not know it, this
is the right attitude about knowledge.

사람마다 저마다의 귀함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맹자 고자

人人有貴於己者 弗思耳
인 인 유 귀 어 기 자 불 사 이

Each one has noble virtues within oneself, but
most people do not notice it.

弗 아니다(=不) 耳 뿐이다

함께 말을 나눌 만한데도 함께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함께 말을 나눌만 하지
못함에도 함께 말을 나누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논어 위령공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가 여 언 이 불 여 지 언 실 인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불 가 여 언 이 여 지 언 실 언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지 자 불 실 인 역 불 실 언

與 더불어, 함께 失 잃다 亦 또한

If you do not share your words with some who deserves it, you would lose the person.

If you share your words with someone who does not deserve it, you would lose your words.

The wise do not lose others as well as words.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해야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대학 경1장

物有本末 事有終始

물 유 본 말 사 유 종 시

知所先後 則近道矣

지 소 선 후 즉 근 도 의

Things consist of fundamentals and peripherals.
Affairs have start and finish points. If you
know which has priority, you are close to the
Way.

終 끝, 마지막 始 처음 近 가깝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누구는 배워서 알고
 누구는 애를 써서 알지만,
 알게 된다는 점은 똑같다.

중용 20장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혹 생 이 지 지 혹 학 이 지 지

或困而知之 及其知之 一也

혹 곤 이 지 지 급 기 지 지 일 야

Some know it from birth. Some know it from
 learning it. Some know it with difficulties.
 Once they come to know it, all are the same.

或 혹, 어떤 경우에는 困 애쓰다 及 미치다, 이르다

지혜가 있더라도 인이 그 지혜를 지킬 수 없으면 비록 얻었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논어 위령공

知及之 仁不能守之 雖得之 必失之

지 급 지 인 불 능 수 지 수 득 지 필 실 지

Supposed that one's wisdom can reach others but one's benevolence cannot protect them. If that is the case, though one might get others, one is sure to lose them later.

能 ~할 수 있다 守 지키다 雖 비록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절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설 수 없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 요알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부 지 명 무 이 위 군 자 야

不知禮 無以立也

부 지 례 무 이 립 야

不知言 無以知人也

부 지 언 무 이 지 인 야

If you do not understand the Mandate of Heaven, you cannot become a noble man. If you do not understand propriety, you cannot become morally upright. If you do not understand the words of others, you cannot understand others.

성균인성교육센터

Confucianism Humanity Education Center

성균인성교육센터는 대학 인성교육 모델 정립과 확산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구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교시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인성영역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전통 가치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03063 서울 종로 성균관로25-2 성균관대 호암관 50217A호
02-760-0165~6 chec@skku.edu <http://chec.skku.edu>

인성가언
내 마음속 논어

펴낸곳 성균인성교육센터

펴낸이 유흥준

엮은이 강보승 / 영역 이용윤 · 이주강

살핀이 이천승

펴낸날 2018년 1월 31일

이 책은 성균인성교육센터 홈페이지(<http://chec.skku.edu>)에서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